지난주 예배 출석 및 모임 통계
Statistics and Worship Attendance Last Week

구분	부서	장소	인원	소계	합계
주일 예배 Sunday worship services	1 2 3 4부 Adults	스프링	78	852	1008
		스트림	147		
		리버	174		
		오션	164		
		라이트하우스	113		
		향동캠퍼스	54		
		방문자등	122		
	교회학교 Sunday School	영유아부 101호	9	156	
		유치부 3층소예배실	25		
		유년부 5층 예배실	25		
		소년부 7층 예배실	34		
		청소년부 5층 예배실	42		
		향동교회학교 향동캠퍼스	21		
주일오후 Sunday Afternoon service		2층 대예배실	116		
수요예배 Wednesday night service		2층 대예배실	98		
토요기도회 Saturday night prayer		2층 대예배실	120		
실버스쿨 Silver school for the aged		5층 예배실 (화) 오전 9:30	한시적 연기		
직장인예배 Wednesday worker's service		6층 채플실 (수) 오전 12:00	매월 마지막주		

새벽예배 Early morning services	월	화	수	목	금	토	주간합계
	93	116	111	107	113	114	654

돕고있는 형제교회 및 선교사
Brother's Church and Missionaries Helping

국내선교 (4) Local Mission
- 상주교회 (주용은)
- 시내장로교회 (최정관)
- 예닮교회 (조원혁)
- 주안교회 (엄명섭)

해외선교 (3) Overseas Mission
- 대만 (김성문/조숙순)
- 키르키즈스탄 (정치훈)
- 태국 & 미얀마 (권동환/김연범)

기관선교 (2) Christian Institution Mission
- 총회북한선교
- 나사렛대학교

각교회 전도목표

구분	스프링	스트림	리버	오션	라이트하우스
전도목표	52	52	52	52	52
누계	1	5	3	1	0

지난 주 헌금현황

지난주 헌금 총액	47,282,600 원	지난주 지출 총액	44,423,152 원
헌금 총액 누계	995,488,837 원	지난주 지출 누계	992,541,888 원
지지난주 잔액	87,501 원	지난주 잔액	2,946,949 원

2026년도 등록 새가족 New Registered Members of Our Congregation in 2025

순번	이름	주소	선교회	인도자	등록일
4	강○현	상암동	309남선교회	스스로	1월 18일
5	양○예	상암동	309여선교회	스스로	1월 18일
6	태○순		624여선교회	김태희	2월 8일
7	유○진	상암동		김태희	2월 8일
8	고○희	상암동	470여선교회	스스로	3월 1일
9	장○균	상암동	400남선교회	스스로	3월 1일
10	이○진	상암동	406여선교회	스스로	3월 1일
11	김○영	상암동	515남선교회	스스로	3월 8일
12	김○숙	상암동	514여선교회	스스로	3월 8일
13	김○은	상암동	309여선교회	스스로	3월 15일
14	이○윤	도내동	spring청년공동체	스스로	4월 19일
15	장○정		406여선교회	스스로	4월 26일
16	박○인		406여선교회	스스로	4월 26일
17	장○희	상암동	406여선교회	스스로	5월 3일
18	이○엽	남가좌동	400남선교회	스스로	5월 17일
19	이○아	남가좌동	406여선교회	스스로	5월 17일
20	조○애	상암동	406여선교회	스스로	5월 17일
21	염○석	송도동	569남선교회	김애순	5월 24일
22	손○지	송도동	558여선교회	김애순	5월 24일
23	원○호	원흥동	향동캠퍼스	스스로	5월 31일
24	양○훈	구로동	400남선교회	김슬옹	6월 21일
25	김○식	삼성동	향동캠퍼스	스스로	6월 21일

※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에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암동 뉴스
Announcements
"상암동교회를 방문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 예배안내
오늘은 맥추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3부 예배는 오션&라이트하우스 공동체 주관으로 "인생감사예배"로 드려집니다. 삶의 걸음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나누며, 함께 배우고 이해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2. 선교회 안내
1) 선교회 회장단 모임
- 일시 : 오늘 12시, 5층 VIP실

2) 선교회 월례회
- 일시 : 다음주 3부 예배후,
- 장소 : 각 선교회별 지정된 장소

3.[스프링 청년] 태국 치앙마이 선교 아웃리치
스프링 청년 공동체(총 24명)에서 태국 치앙마이로 선교 아웃리치를 오늘 떠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 일정 : 7월 5일(주일)~11일(토, 오전)
- 사역 : 매땡학사 놀이터/축구장 조성,
  성경학교 (총 3일), 산족 나사렛교회방문 및 전도집회 등

4. [교회학교위원회 여름성경학교] 영유아부
- 주제: 하나님의 갑옷! 전신갑주
- 표어: 믿음으로 승리해요
- 일시: 7월 3일(금) 저녁 6시,
  7월 4–5일(토–주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상암동교회 101호

5. [장년양육위원회]_일대일 제자훈련
제14기 동반자 과정과 제11기 양육자 과정이 시작됩니다. 동반자 과정은 모든 성도 신청 가능하며, 양육자 과정은 동반자 수료자 대상입니다.
- 동반자과정: 16주, 1:1 개별 일정
- 양육자과정: 14주, 팀별 일정(목회자 강의)
- 수료예정: 11월 2일(주일) 오후예배
- 문의: 권수용 목사(010-3139-9381)

6. 주일 마포창업복지관 주차장 이용 안내
주일 2부 또는 3부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은 교회 옆에 있는 창업복지관 주차장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시간 무료주차 후 10분당 500원, 차량 출입구 도보 이용)

7. 교우 소식 (결혼)
권도윤 형제 (권병수 장로& 소경옥 권사의 장남)
- 일시: 7월 11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
  (교회 출발 11시 30분)
- 장소: 더파티움 여의도 1층 (영등포구 은행로 30)

8. 담임목사 동정
- 7월 7일(화)~11일(토) : 총장 포럼 세미나 (베트남)
- 7월 13일(월)~25일(토) : 담임목사 안식월

교회 청소봉사자 (각 선교회) **7월 11일** 남선교회(515) 여선교회(514) **7월 18일** 남선교회(604) 여선교회(624)

◈ 새가족 오리엔테이션 매주일 9:45~10:20 (5층 새가족양육실)

[2부 안내위원] (1층) 김태희 (2층) 이명숙 (본당) 박인선 김선순

[3부 안내위원] (1층)김광동 조월심 (2층) 이성애 (본당) 소경선 안지원 이미화 (4층) 유미경 유희숙 조선화

주차안내 봉사 조정환 **교회차량운행** 남철희 송지훈 조정환 최두환 강효진

온라인 헌금계좌 은행(새마을금고) 예금주(상암동교회)

십일조헌금	0436–0900–0334–1	일반헌금	0436–0900–1381–1

주일 큰 비 예배 (Sunday Worship Services)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1부 묵상예배(오전7:30)
1st Service(Meditation)
인도 & 말씀 : 권수용 목사

순서	내용
교회소식 Announcements	영상광고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인도자 Presider
신앙고백 Confess of Faith	♣ 사도신경 The apostles' Creed
찬송 Hymn	♣ 찬송가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1,2,3절)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레위기 23:9–16
회중봉헌찬양 Offering Song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설교자
말씀 Message	감사로 표현하는 신앙
찬송 Hymn	깊어진 삶을 주께
축도 Benediction	설교자
폐회송 Closing Hymn	반주자

2부 전통예배(오전9:00)
2nd Service (Traditional)
인도 : 유덕선 목사 말씀 : 신민규 담임목사

순서	내용
교회소식 Announcements	영상광고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인도자 Presider
찬송 Hymn	♣ 찬송가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1,2,3절)
신앙고백 Confess of Faith	♣ 사도신경 The apostles' Creed
성시교독 Responsive Reading	♣ 교독문 105번 (감사절 1)
공동기도 Congregational Prayer	윤태순권사 (실행제직)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시편 50:23, 100:4, 살전 5:18
회중봉헌찬양 Offering Song	♣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설교자
찬양 Choir Song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임마누엘 찬양대)
말씀 Message	한 해의 절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찬송 Hymn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축도 Benediction	설교자
폐회송 Closing Hymn	반주자

3부 은혜예배(오전10:30)
3rd Service (Family)
인도 : 한희나, 김은성 목사 말씀 : 신민규 담임목사

순서	내용
찬양단	아바딤 찬양단
합심기도 Choir Song	다 같이
공동기도 Congregational Prayer	강상대 장로 (라이트하우스)
찬양 Choir Song	다 감사드리세 (할렐루야 찬양대)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시편 50:23, 100:4, 살전 5:18
말씀 Message	한 해의 절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합심기도 Choir Song	다 같이
회중봉헌찬양 Offering Song	♣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설교자
축도 Benediction	설교자
파송의찬양 Celebration	아바딤 찬양단

♣ 표가 있는 순서는 몸이 불편하신 분 외에는 모두 좌석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늦은 비 예배 (오후 2:30) Sunday afternoon worship
- ·기도 박재원 권사(다음주 백향숙 권사)
-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딤전 6:11–16)
- ·설교자 신민규 담임목사

수요 단비 예배 (저녁 7:30) Wednesday night worship
- ·성경 열왕기상 19장 1–8절
- ·말씀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
- ·설교자 이광원 목사

예배 봉헌 담당 (Usher team)

구분	금주	다음주	봉헌위원
1부	교역자	교역자	교역자
2부	장옥수 장로	신승중 장로	송두성 안순자 유희숙 이가희 최금님
3부	신승중 장로	조용만 장로	강경자 김은해 신정화 신화옥 최양숙 이경희

다음주 예배 공동기도담당

구분	기도위원
1부	인도자
2부	김순진 장로
3부	민병석 장로

한 해의 절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생명의 말씀 신민규 목사
Message Dr. Shin Min-Gyoo
시편 50:23, 시100:4; 데살로니가전서 5:18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절은 출애굽기 23:16에서 처음 언급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또한 출애굽기 34:22은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라고 말씀하며, 이 절기가 유월절로부터 오십 일째 되는 날, 곧 보리와 밀의 첫 추수가 끝나는 시기에 지켜졌음을 보여 줍니다. 칠칠절이라는 이름은 안식일을 일곱 번 센 후 그다음 날, 곧 일곱 주가 지난 날에 지킨다는 뜻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훗날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절기는 '오십'이라는 뜻의 **〈펜테코스테〉**로 불리게 되었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오순절이라는 이름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지난 여섯 달을 돌아보면 우리 각자의 삶 속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습니다. 기도가 응답된 날도 있었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며 긴 밤을 지새운 날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난 여섯 달 내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세 본문은 모두 감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은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선언합니다. 시편 100편 4절은 감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라고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저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귀한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 50:23). 이 말씀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표현은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원어에서 이 표현은 **〈토다 제바흐〉**, 곧 감사 희생 제사를 뜻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에서 감사 제사는 화목 제물의 한 종류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응답으로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제물은 다름 아닌 우리의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찬양이 있고 웅장한 건물이 있으며 수많은 무리가 모여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이 비록 곤고하고 손에 쥔 것이 적을지라도,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감사의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영적 제사가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최고의 신앙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 100:4).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 의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나아갈 때, 그들은 성전 문을 통과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감사였습니다. 성전 문 앞에 선 예배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복잡한 예식의 지식도, 유창한 언변도, 많은 제물도 아니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하나면 충분하였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기도가 잘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예배에 집중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감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라고 노래하였습니다. 그 문은 성전의 물리적 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서는 영적 문입니다. 지난 여섯 달 동안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문을 우리를 위하여 열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18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감사에 관한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명령 가운데 하나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범사에'**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라는 말은 헬라어로 **〈엔 판티〉**인데, 이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라는 뜻입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풍족할 때도 부족할 때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감사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으로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명령 뒤에 붙은 근거를 보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상황이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의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손 밖에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8:28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믿음이 범사에 감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설교 노트

신민규 담임목사의 1분 컬럼 (Senior Pastor's 1 Minute Column)

현관에 너저분하게 벗어 놓인 신발을 보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정신상태가 엉망이군." 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빨리 집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에 신발이 헝클어졌구나. 가족을 빨리 만나고 싶었던 마음의 흔적이네. 참 행복한 가정이구나." 똑같은 장면이지만 바라보는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흐트러진 신발을 난잡한 정신상태의 증거라고 생각한 아빠는 집에 들어서기도 전에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집에 들어오니 아이들의 반가움이나 아내의 지친 마음을 살필 여유가 없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아빠를 '집에 오면 잔소리하는 사람'으로 기억하게 됩니다.반대로 헝클어진 신발을 '가족을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의 흔적'으로 생각한 아빠는 미소를 지으며 가족을 맞이합니다.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도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같은 현실이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분위기와 결과는 달라집니다. 건강한 마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행동보다 그 이면의 마음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대를 이해하고, 연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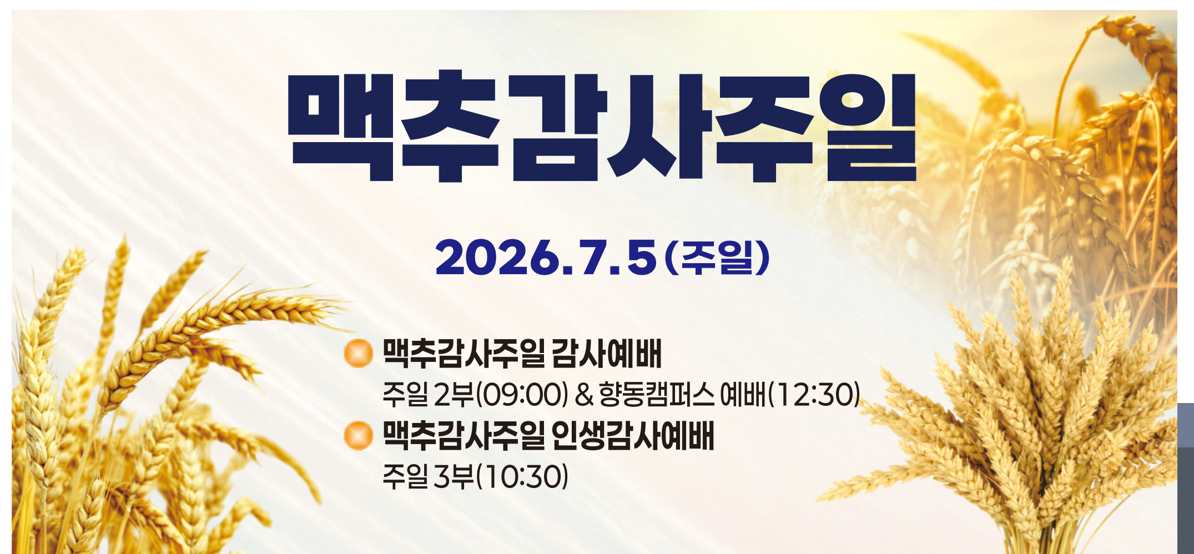
성령강림후 6주 맥추감사주일 ● 2026년 7월 5일 (제 73권 27호)

상암동교회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합 3:2)
거룩한 영성, 따뜻한 인격,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교회

정선수양관

향동캠퍼스



맥추감사주일

2026.7.5(주일)

- **맥추감사주일 감사예배**
  주일 2부(09:00) & 향동캠퍼스 예배(12:30)
- **맥추감사주일 인생감사예배**
  주일 3부(10:30)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출 23:16)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 (Christlike Disciples)를 세우는

2026년 상암동교회 교회학교 SPRING 청년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

부서	주제	일정
영유아부	하나님의 갑옷! 전신갑주	7.3(금)~5(주일)
유치부	다윗처럼	7.24(금)~26(주일)
유년부	다윗처럼	7.24(금)~26(주일)
소년부	예수행전 : His Story	8.3(월)~5(수)
청소년부	내 얼굴을 찾으라	7.30(목)~8.1(토)
청년부	승리의 주 : Never Lost	8.13(목)~15(토)

사랑과 믿음, 그리고 희망의 공동체
The Community of Love, Faith, and Hope.

신민규 담임목사
(대한기독교 나사렛성결회 상암동교회)
Rev. Dr. **Min–Gyoo Shin**

상암동교회(구 성암교회)는 1955년 6월 8일 상암동 산기슭 (현재4단지)에서 창립이래 70여년동안 상암동주민과 동고동락하고 있는 교회로 마을 원주민들 거의가 한번쯤은 나와 본 영혼의 안식처 그리고 주민들에게 많은 추억이 있는 교회다. 지금은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의 장자교회로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영적 소임에 충실하고 있으며 '사랑과 믿음, 그리고 희망의 공동체'를 지향한다. 안산동산교회 원로목사 김인중 목사가 상암동교회 출신이다.

담임목사 신민규 목사는 나사렛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남부나사렛대학교(이학사, 문학석사), 미국 나사렛신학대학원(신학석사), 미국 캔사스주립대학교(이학석사, 교육학박사), 미국 에모리대학교(목회상담학박사)를 졸업했다. 미국유학 중 캔사스주에서 정션교회를 개척 담임했고 귀국 후 나사렛대학교에서 10년간 신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교와 프린스턴신학대학원 객원교수를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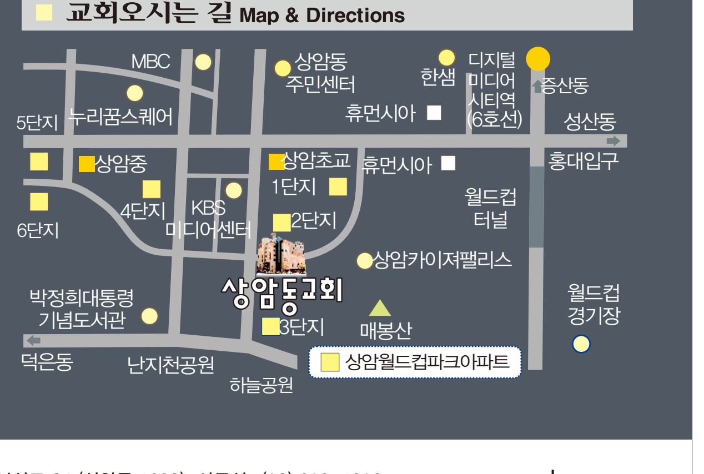
2000년 6월 10일 상암동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2012년 3월 부터 2016년 2월까지 제6대 나사렛대학교 총장을 역임했고, 2013년 6월부터 국제총회이사회 부의장으로 국제 나사렛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1년 2월까지 대만나사렛신학대학 총장으로 봉직했다. 2019년 3월 제64차 한국총회에서 선출되어 3년 임기의 총회감독과 2021년 한국성결교회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역임하였고, 2023년 12월부터 나사렛대학교 제16대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현재 상암동교회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Church Staffs (Associate Pastors, Missionaries, Lay Elders, and Lay Workers)
- 부목사 : 유덕선 권무일 권윤석 조요한 권수용 김용태 이광원 한희나 박충열 김은성
- 협동목사 : 김진국 류욱렬 ■ 선교사 : 권동환 김연범 정치훈 ■ 교육전도사 : 이수진 신은혜 고수완 ■ 교육사 : 문은경
- 시무장로 : 김순진 민병석 최창수 도명락 권병수 장옥수 신승중 조용만 원유만 김하동 임재용 이재명
- 원로장로 : 장석춘 권태환 최인철 ■ 은퇴장로 : 박순영 이종태 박수영 차주섭 송연희 유준식
- 명예장로 : 강상대 김무일 박영애 양철호 윤성용 유중종 이두표 강영호 ■ 관리사 : 강신중
- 지휘 : (임마누엘) 최혜경 (할렐루야) 소경옥 ■ 방송·영상 : 김남식 윤지한 조범수 김기호 홍흥표 문경빈 (간사)조성민
- 반주 : (1부)한희나 (2부)이현주 (3부)권은선, 김송희 (향동캠퍼스)이진화 (새벽)박은희 소재경

예배시간 안내 Worship Services

예배		시간	장소
주일 1부 예배		주일오전 07:30	2층 본당
주일 2부 예배		주일오전 09:00	2층 본당
주일 3부 예배		주일오전 10:30	2층 본당
향동캠퍼스 주일예배	1부	주일오전 10:30	향동캠퍼스
	2부	주일오후 12:30	향동캠퍼스
주일오후예배		주일오후 02:30	2층 본당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06:00	2층 본당
수요예배		수요오후 07:30	2층본당, 향동캠퍼스
토요찬양기도회		토요오후 07:30	2층 본당
청소년부		주일오후 12:00	5층 예배실
청년부		주일오후 12:00	2층 본당
유아부(0–4세)		주일오전 10:30	1층 101호
유치부(5–7세)		주일오전 10:30	3층 소예배실
유년부(1–3학년)		주일오전 10:30	5층 예배실
소년부(4–6학년)		주일오전 10:30	7층 예배실

교회오시는 길 Map & Directions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상암동교회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24 (상암동 1638) 사무실: (02) 309–1906 www.sangamdong.org
정선수양관(신동읍 동강로 836) : 담당사역자 권무일 목사 향동캠퍼스(덕양구 꽃마을로 42, 9층) : 담당사역자 권윤석 목사

1年の半分を導いてくださった神様に感謝を
詩篇 50:23、詩100:4; テサロニケ第一 5:18

今日は七週の祭りです。七週の祭りは出エジプト記 23:16で初めて言及されています。「あなたは、畑に蒔いて得た産物の初物を刈り入れる刈り入れの祭りを行い、年の終わりには、畑の産物を取り入れる時に、取り入れの祭りを行わねばならない。」また出エジプト記 34:22は「七週の祭りを守りなさい」と言われ、この祭りが過越しの祭りから50日目になる日、麦の初収穫が終わる時期に持たれたことを見せてくれます。七週の祭りと言う名前は安息日を7回数えたその後日、つまり七週が過ぎた日に守ったと言う意味から始まりました。後にヘブライ語を使用するユダヤ人たちの間でこの祭りは「50」と言う意味の<ペンテコステ>と呼ばれるようになり、これが今日わたしたちが知っている五旬節と言う名前の起源になりました。

過ぎ去った6ヶ月を振り返ると、わたしたち各自の人生の中には大小のことがありました。喜びもあり、涙もありました。祈祷がこたえられた日もあり、祈祷の応答を待ちながら長い夜が明けた日もありました。それでも今日わたしたちがこの場に共にいると言うことは、神様が過ぎ去った6ヶ月の間ずっとわたしたちを守り導いてくださった証拠です。今日わたしたちが共に読んだ三つの部分は、全て感謝に関する御言葉です。詩篇50篇23節は感謝が神様の栄光を輝かすと宣言しています。潮篇100篇 4節は感謝することにより主の門に進むことができると教えています。テサロニケ5章 18節は、感謝が神様の御心であると言います。この三つの御言葉を中心にわたしは、聖徒の皆さんと共に貴い真理を分かち合いたいと思います。

第一に、感謝は神様の「栄光を輝かす」いけにえです。「感謝をいけにえとしてささげる人はわたしを栄光に輝かすであろう。道を正す人にわたしは神の救いを示そう」(詩 50:23)。この御言葉で「感謝のいけにえを捧げる」と言う表現はとても深い意味を持っていて、原語での表現は<トダチェバホ>、つまり感謝のいけにえを意味します。イスラエルの祭祀制度で感謝のいけにえは和睦祭物の一種であり、神様が特別に救いと恵みを施してくださったことに対する応答として捧げる祭祀でした。わたしたちが神様の前に出て礼拝を捧げるとき、その礼拝の最も核心的ないけにえは他でもないわたしたちの感謝だと言う事実です。いくら華麗な賛美があり、雄壮な建物があり、多くの群れが集まったとしても、その中心に神様に向かう本当の感謝が欠けていたなら、それは神様が受け取られる礼拝にはなりません。反対にわたしたちの人生が、仮に困苦で手にしている物が少なかったとしても、過ぎ去った半年間施してくださった恵みに感激して捧げる感謝の礼拝は、神様の栄光を最も輝かす霊的な祭祀になります。感謝は神様を神様として認める最高の信仰告白だからです。

第二に、感謝は神様に「進むための」門です。「謝の歌をうたって主の門に進み賛美の歌をうたって主の庭に入れ。感謝をささげ、御名をたたえよ」(詩 100:4)。この御言葉はエルサレムの聖殿の礼拝儀式を背景としています。イスラエルの民が聖殿に進むとき、彼らは聖殿の門を通過し賛美をしました。そしてその門を開ける鍵が感謝でした。聖殿の門の前に立った礼拝者に必要なことは、何だったでしょうか?複雑な礼式の知識も、流暢な話術も多くの祭物でもありませんでした。感謝する心１つあれば充分でした。感謝することによりその門に入ることができました。祈りがうまくできないとき、神様を遠く感じるとき、礼拝に集中できないとき、わたしたちが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は感謝することを始めることです。詩篇記者は「感謝することでその門に入り」と歌いました。その門は聖殿の物理的な門でもありましたが、同時に神様の臨在へと入っていく門です。過ぎ去った６ヶ月わたしたちが生きることができたのは、神様がその門をわたしたちのために開けておいてくださったからです。

第三に、感謝はどのような状況でも捧げなければならない「神様の御心」なのです。 テサロニケ第一 5:18は新約聖書全体でも、感謝に関する最も包括的であり、強力な命令の１つです。「どんなことにも感謝しなさい。これこそ、キリスト・イエスにおいて、神があなたがたに望んでおられることです。」ここでわたしたちが注目しなければならない単語は二つです。第一は「どんなことにも」であり、第二は「神様の御心」です。「どんなことにも」と言う言葉はヘブライ語で <エンパンティ>で、これは「全てのことの中で」、「全ての状況の中で」と言う意味です。良いことがあるときだけ感謝するのではなく、嬉しいときも悲しいときも、豊かなときも貧しいときも、健康なときも健康でないときも感謝しろと言う命令です。これは人間の自然な感情で不可能なことのように見えます。苦しい状況でもどのように感謝する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か? しかしこの命令の後ろに付く根拠を見てください。「これがキリストイエスの中であなた方に向かう 。」どんなことにも感謝できる根拠は、状況が良いからではありません。キリストイエスの中にいるからです。わたしたちがキリストイエスの中にいる限り、わたしたちはどのような状況でも神様の手の外にはあいません。ローマ 8:28の御言葉のように「神様を愛する者たち、つまり、御計画に従って召された者たちには、万事が益となるように共に働くということを、わたしたちは知っています。」この信仰がどんなことにも感謝することを可能にします。

(번역) 이와카타 집사

向引领我们走过半年的 神献上感恩
诗篇 50:23; 诗篇 100:4; 帖撒罗尼迦前书 5:18

今天是麦秋感恩主日。麦秋节最早记载于出埃及记 23:16："你要守收割节，所收的是你田间所种、劳碌得来初熟之物。"此外，出埃及记 34:22也说："在收割初熟麦子的时候要守七七节"，由此可见，这节期是在逾越节之后的第五十日、即大麦与小麦初次收割完毕之时所守的。"七七节"这名，源于安息日数算七次之后的次日、即满了七个七日之时所守之意。后来，在使用希腊文的犹太人中间，这节期被称为意为"五十"的"彭特科斯特"，这便是我们今日所知"五旬节"一名的由来。

回顾过去的六个月，我们各人的生命中都经历了或大或小的事。有欢笑，也有泪水。有祷告蒙应允的日子，也有等候应允、彻夜难眠的长夜。即便如此，今日我们仍能一同站在这里，正是神在过去六个月里始终扶持、引领我们的明证。今天我们一同诵读的三段经文，都是关于感恩的话语。诗篇50篇23节宣告，感恩使 神得荣耀。诗篇100篇4节教导，感恩是通向 神的门。帖撒罗尼迦前书5章18节说，感恩是 神的旨意。今天，我愿以这三段话语为中心，与众圣徒一同分享宝贵的真理。

第一，感恩是使 神"得荣耀"的祭。**"凡以感谢献上为祭的便是荣耀我；那按正路而行的，我必使他得着我的救恩。"**（诗 50:23）。这句话中，**"以感谢献上为祭"**这一表述蕴含着极深的意义。在原文中，这一表述为**"托达·泽巴赫"**，即感谢的牺牲之祭。在以色列的献祭制度中，感谢祭是平安祭的一种，是为回应 神所赐特别的拯救与恩典而献上的祭。这意味着，当我们来到 神面前敬拜时，那敬拜中最核心的祭物，正是我们的感恩。纵有何等华美的赞美、何等宏伟的殿宇、何等众多的会众聚集，若其中心缺了向 神献上的真诚感恩，那便不能成为 神所悦纳的敬拜。反之，纵然我们的生活困苦、手中所握甚少，但因着感念这半年来所蒙的恩典而献上的感恩之敬拜，却能成为最使 神得荣耀的属灵祭物。因为感恩，乃是承认 神为 神的至高信仰告白。

第二，感恩是"通向" 神的门。**"当称谢进入他的门，当赞美进入他的院；当感谢他，称颂他的名。"**（诗 100:4）。这话语以耶路撒冷圣殿的敬拜礼仪为背景。以色列百姓进入圣殿之时，他们要穿过殿门，口唱赞美。而开启那门的钥匙，正是感恩。站在圣殿门前的敬拜者，所需要的是什么呢？既不是繁复礼仪的学问，也不是流利的口才，更不是众多的祭物。唯有一颗感恩的心便已足够。人凭着感恩，便能进入那门。当祷告不通畅之时，当 觉得 神离自己遥远之时，当敬拜无法专注之时，我们所当做的，唯有感恩。诗篇记载道：**"当称谢进入他的门"**。那门既是圣殿有形的门，同时也是进入 神同在之中的属灵之门。我们之所以能在过去六个月里存活下来，正是因为 神为我们敞开了那道门。

第三，感恩是无论身处任何境况都当献上的" 神的旨意"。帖撒罗尼迦前书 5:18，是新约圣经中关于感恩最为全面、最为有力的命令之一。**"凡事谢恩，因为这是 神在基督耶稣里向你们所定的旨意。"**在此，我们当留意的有两个词。第一是**"凡事"**，第二是**" 神的旨意"**。**"凡事"**一词，希腊文为**"恩·潘提"**，意即"在一切之中"、"在所有境况之中"。这是命令，意思是：不单在顺境时感恩，乃是喜乐时、悲伤时，丰足时、缺乏时，健康时、患病时，都要感恩。单凭人天然的情感来看，这仿佛是不可能之事。身处痛苦的境况，又怎能感恩呢？然而，请看这命令之后所附的根据：**"这是 神在基督耶稣里向你们所定的旨意。"**能在凡事上感恩的根据，并非因境况美好，乃是因我们在基督耶稣里。只要我们在基督里，我们的任何境况都不在 神的手之外。正如罗马书 8:28所言：**"万事都互相效力，叫爱 神的人得益处，就是按他旨意被召的人。"**正是这份信心，使凡事感恩成为可能。

(번역) 김기호 집사

Giving Thanks to God Who Has Guided Us Through Half the Year
Psalm 50:23; Psalm 100:4; 1 Thessalonians 5:18

Today is Harvest Thanksgiving Sunday. The Feast of Harvest is first mentioned in Exodus 23:16: **"Celebrate the Festival of Harvest with the firstfruits of the crops you sow in your field."** Also, Exodus 34:22 says, **"Celebrate the Festival of Weeks with the firstfruits of the wheat harvest,"** showing that this feast was observed on the fiftieth day after Passover, at the time when the first barley and wheat harvests were completed. The name "Feast of Weeks" comes from counting seven Sabbaths and then the next day—that is, after seven weeks had passed. Later, among Greek-speaking Jews, this feast came to be called **Pentecost**, meaning "fiftieth," which is the origin of the name we know today.

Looking back over the past six months, there have been both great and small events in each of our lives. There were joys and there were tears. There were days when prayers were answered, and there were nights when we stayed awake waiting for God's response. Yet the very fact that we are gathered here together today is evidence that God has held us and guided us throughout these past six months. The three passages we read together today all speak about thanksgiving. Psalm 50:23 declares that thanksgiving glorifies God: "Those who sacrifice thank offerings honor me, and to the blameless I will show my salvation." Psalm 100:4 teaches that thanksgiving is the gate into God's presence: "Enter his gates with thanksgiving and his courts with praise; give thanks to him and praise his name." And 1 Thessalonians 5:18 says that thanksgiving is the will of God: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Centering on these three verses, I would like to share precious truths with you, beloved congregation.

First, thanksgiving is a sacrifice that glorifies God. "Those who sacrifice thank offerings honor me, and to the blameless I will show my salvation" (Psalm 50:23). In this verse, the expression **"sacrifice thank offerings"** carries deep meaning. In the original language, this phrase refers to the **todah zebach**, that is, the thanksgiving sacrifice. In Israel's sacrificial system, the thank offering was a type of fellowship offering, offered in response to God's special deliverance and grace. When we come before God to worship, the most essential offering of that worship is none other than our thanksgiving. No matter how splendid the praise, how magnificent the building, or how large the gathering, if genuine thanksgiving to God is missing at the center, it cannot be worship that God accepts. Conversely, even if our lives are difficult and what we hold in our hands is meager, the worship of thanksgiving offered in gratitude for the grace shown to us over the past half year becomes a spiritual sacrifice that most glorifies God. For thanksgiving is the highest confession of faith that acknowledges God as God.

Second, thanksgiving is the gate by which we enter into God's presence. "Enter his gates with thanksgiving and his courts with praise; give thanks to him and praise his name" (Psalm 100:4). This verse is set against the background of the worship liturgy at the Jerusalem temple. When the people of Israel came to the temple, they passed through the gates singing praises. And the key that opened those gates was thanksgiving. What did the worshiper standing before the temple gates need? It was not intricate knowledge of rituals, not eloquent speech, nor many offerings. A thankful heart was enough. With thanksgiving, they could enter those gates. When prayer does not flow easily, when God feels distant, when we cannot concentrate in worship, what we need to do is simply begin giving thanks. The psalmist sang, **"Enter his gates with thanksgiving."** That gate was both the physical gate of the temple and, at the same time, the spiritual gate into the presence of God. The reason we have been able to survive these past six months is that God kept that gate open for us.

Third, thanksgiving is God's will to be offered in every circumstance. 1 Thessalonians 5:18 is one of the most comprehensive and forceful commands regarding thanksgiving in the entire New Testament: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Here we must pay attention to two words: first, **"in all circumstances,"** and second, **"God's will."** The phrase **"in all circumstances"** comes from the Greek **en panti**, meaning "in everything" or "in every situation." It is a command to give thanks not only when things are good, but also when we are joyful and when we are sorrowful, when we have plenty and when we are in need, when we are healthy and when we are sick. This may seem impossible by human emotion. How can we give thanks in painful situations? But look at the reason attached to this command: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The ground for giving thanks in all circumstances is not that our situation is favorable. It is that we are in Christ Jesus. As long as we are in Christ, no situation of ours lies outside God's hand. As Romans 8:28 says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This faith makes it possible to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번역) 김은성(Kevin Jin) 목사